

제 6 편  
종교 宗教



## 제3장 불교 佛教

### 1. 팔성사(八聖寺)

본 사찰은 행정구역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 뒤편 1km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우금 1,390 여년전 신라진평왕(眞平王) 24년, 백제무왕(武王) 3년(603)에 신라 해공대사 창건으로 진평왕 말엽 원효 의상 거주 당시 진평왕이 중수하였고 조선 세종 때 성주스님에 의해 재중수 되었다. 최근에 혜전(慧田)스님 주지당시 대웅전(大雄殿)을 복원 하였고 법륜(法輪) 스님 임기 중 극락전(極樂殿) 성적선원(聖跡禪院) 삼성각(三聖閣) 운점루(雲岾樓), 만향대(滿香臺) 등 복원 대작불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진 631-1 팔성사



- 사찰명 : 팔성사(八聖寺)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1267
- 종파 : 대한불교 조계종
- 연혁 : 신라진평왕(眞平王) 24년, 백제무왕(武王) 3년, (603년)
- 재산 : 답 3,696 평, 사찰림 9 정 3 반 3 묘
- 대지 : 4,000 평
- 건물 : 6동 대웅전(大雄殿) 35 평, 극락전(極樂殿) 35 평, 삼성각(三聖閣) 10 평, 성적선원(聖跡禪院) 40 평, 운점루(雲岾樓) 45 평, 만향대(萬香臺) 15 평
- 문화재 : 석가여래좌상(釋迦如來坐像)  
관세음보살상(觀世音菩薩像)  
지장보살좌상(地藏菩薩坐像)  
배광석가좌상(背光釋迦坐像)  
지장보살입상(地藏菩薩立像)  
수지지장입상(水子地藏立像)  
범 종(梵鐘) 1점
- 신 도 : 1,300 명
- 대 중 : 스님 6명, 일반인 2명

팔공산 팔성사는 성적산 ‘운점사’라고도 불리웠다. <신동국 여지승람>에 의하면 장수에는 빼어난 명산이 많으며 그중에서도 성적산, 영취산, 백화산, 덕유산을 들 수 있는데 산의 위치는 덕유산이 현의 북쪽 50리에 있고 영취산은 현의 동쪽 10리 성적산은 현의 서남방 15리에 있으며 백화산은 장계현에 있고 육십현(六十峴)은 현의 북쪽 40리, 수분현(水分峴)은 현의 남쪽 25리라 했으니 현재 팔공산(八公山) 팔성사(八聖寺)는 정확하게 현의 서남쪽 15리 성적산 운점사 터에 자리하고 있다.

<신동국여지승람>의 운점사기록을 그대로 옮겨 보자면 “운점사는 성적산에 있다. 신라진평왕이 중수하였으며 원효(元曉)의 도량이었다. 만향점(萬香岾)이 있으니 원효와 의상이 이곳에서 강법(講法)을 하면 기이(奇異)한 향기가 남북에 가득하니 만향점이라 이름 하였다한다. 본조세종 때 승(僧), 성주(省珠)에 의해 다시 한번 중수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 [팔공산 팔성사란 명칭의 유래]

신라시대 원효대사께서 경남 양산군 하북면 용연리 내원사(內院寺)에 거주 할때 장마가 심하던 어느 여름날 천기를 보고 중국 남쪽지방의 큰 사찰에 천여명대중이 큰 변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첩판시중(牒判示衆)이라고 작은 널판쪽에다 글을 써서 던지니 그 절 마당위에 글씨가 쓰인 널판지가 들고 있는 것을 구경하러 천여명이 다 나온 사이 건물이 무너져 모두 목숨을 구하자 이에 천명의 중국 스님들이 신라 땅으로 원효를 찾아와 설법을 청하자 당시의 양산 내원사는 아주 작은 암자로 천명 대중이 들어갈 곳이 없어 뒷산 넓은 벌판으로 데려가서 야외불단(野外佛壇)을 세우고 법좌석(法座席)을 마련하여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華嚴經)을 설하였다.

이때부터 그 산은 천명의 성스러운 스님들이 들렸던 곳이라 하여 천성산이라고 불려져 왔고 그 벌판은 화엄경을 설(說)했다 하여 화엄벌이라 하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단법석(野壇法席)과 같다하여 야단법석이란 말이 전해 오고 있다.

그 후 천명의 스님들이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고 8명의 스님만이 원효를 따라 수도를 하던 중 원효와 의상이 이곳 팔공산에 들어와 그들을 가르치며 함께 거주하였기에 이때부터 8명의 귀한 손님들이 산다하여 팔공산이라 불렀고 모두가 성스러운 스님들이라 하여 팔성사라 이름 하였으며 이들 성인들의 자취가 남은 곳이라 하여 성적산이라고도 한다. 당시 스님들이 각각 거



주했던 암자로 용탑사(龍塔寺) 문수암(文殊菴) 보현암(普賢菴) 수문암(水門菴) 광명암(光明菴) 벽계암(碧溪菴) 국사암(國師菴) 팔공암(八公菴) 등이 이 팔성사에 속해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이상의 기록에 나타난 운점사나 팔성사는 산의 남쪽에 있는 옛 팔성사로 추측이 되며 현재의 팔성사는 그 소속 암자들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의 팔성사는 산내에서 유일하게 1,400년의 긴 세월을 꺼질듯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옛 수도도량의 명맥을 이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근간의 대작불사로 이제는 튼튼한 기반위에 우뚝 솟아 만인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청정도량이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기만 하다.

## 2. 고승(高僧)의 발자취

### 가. 혜공(惠空)

신라선덕여왕 당시 연세 지긋한 기승(奇僧)이었으며 신라의 제상 천진공(天真公)의 집에 심부름하는 할머니의 아들로 태어나 이름을 우조(憂助)라 했다. 7세 때 천진공이 창병이 나서 죽게 되자 우조가 고칠 수 있다고들 하여 우조를 불렀더니 병상 앞에 이르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창이 저절로 터져 날았으나 천진 공은 우연이려니 생각했다.

자란 뒤에 우조에게 매를 기르게 했는데 공의 동생이 지방으로 벼슬을 가면서 매를 빌려 갔다. 어느 날 공이 내일은 우조에게 매를 찾아오라고 해야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우조가 미리 알고 밤에 찾아다 놓았다.

공이 크게 놀라 이진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성인이 내 집에 태어남을 알지 못하고 버릇없는 일이 많았으니 죄가 한량이 없소이다. 앞으로는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하고 절을 하였다.

우조는 본색이 들어나자 집을 나와 승(僧)이 되어 법명을 혜공이라 했으며 항상 작은 암자에 숨어 거주하면서 삼태기를 짊어지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다니니 부귀화상(負貴和尚)이라 하였다.

가끔은 우물 속에 들어가 몇 달씩 있다가 나올 때면 항상 벽의동자(壁依童子)가 먼저 나왔으며 뒤따라 우물에서 나와도 옷이 조금도 젖지 않았다고 한다. 원효가 경소(經疏)를 지을 때나 학문에 의심이 날 때는 항상 이 스님에게 물었으며 서로 친절하게 자주 사귀고 농을 잘하여 하루는 두 스님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냇물에서 똥을 누웠더니 똥이 물고기가 되어 물을 거슬러 올라가니 서로 「내똥 내고기」라 하여 그곳에 절 이름이 오어사(吾魚寺)가 되었

다. 하루는 영묘사에 가서 금당과 남문에 새끼줄을 치고 3일후에 거두라 하더니 그날 그 절 남문으로 왕이 거동 하였다 하며 또 어느 때는 명랑법사(明朗法師)께서 금강사를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해공스님이 아니오자 향을 사루고 잠시 기도를 하니 비가 오는데 옷도 젖지 않고 발에 흙도 묻지 않은 채 들어 왔다고 한다. 신출귀몰한 이 스님의 행적은 전국 각지에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특히 해공의 자취에 원효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으니 이곳 팔공산 팔성사에도 이 성스러운 스님들의 자취가 깊이 서렸기에 성적산이란 명칭이 붙여졌을 것이다.

#### 나. 원효(元曉)

신라진평왕시대(617~686) 속명은 서당(誓幢)으로 잉피공(仍皮公)의 손자 담내내말(談捺乃末)의 아들로 남불지촌(南佛智村) 북쪽 율곡 사라수(娑羅樹) 아래서 태어났으며 29세 때 출가하여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교리를 연구하고 변론을 잘하여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면 하늘을 받칠 기둥을 깎으리라」하여 요석궁에서 설총을 낳고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자칭하면서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해공을 스승으로 의상을 도반(道伴)으로 많은 제자를 가르친 중 한 때는 팔성사에 머물면서 절을 중수하고 많은 제자를 가르치며 일생동안 수많은 경전(經典)의 중요(宗要)와 소(疏)를 짓고 많은 서적을 발간하였다.

신문왕 6년 3월 30일 혈사(穴寺)에서 입적하였으며 지월록(指月錄)에 원효가 당나라에 가서 도를 구하려고 여러 곳을 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무덤가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 해골물을 마시고 날이 새어 해골을 보고 구역질을 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이 나면 여러 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법이 없어진다 하더니 마음이 없으니 해골도 없어지는구나 부처님 말씀에 삼계가 마음뿐이라 했으니 어찌 나를 속였으리요!’ 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고려숙종 6년에 시호(諡號)를 대성화정국사(大聖和靜國師)라 하였다.

원효가 서술한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 “고악아암(高嶽我巖)은 지인소거(智人所居)요 벽송심곡(碧松深谷)은 행자소서(行者所棲)라” 했으니 즉 높은 산 바위굴은 깨달은 이가 사는 곳이고, 그윽한 곳 푸른 숲은 닦는 이가 사는 곳이니 해발 700에 가까운 반석 좋은 팔성사에 어찌 높은 산 좋은 바위를 좋아하던 원효가 행랑을 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지금도 맑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에 원효의 숨결이 베어 나오는 듯 하다.

#### 다. 의상(義相)

신라중기의 고승(高僧)이며 화엄종(華嚴宗)의 시조 진평왕 47년~성덕왕 1년(625~702년) 속성은 김씨로 20세에 출가하여 진덕왕 4년(650)에 원효와 함께 중국에 가다가 원효는 해골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돌아오고 혼자 당나라에 가서 양주땅에 머물다가 662년에 종남산 지상사 지엄에게서 현수와 함께 부처님 처음 깨달은 진리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華嚴經)을 연구하던 중 신라의 사신 김흠순(金欽純)을 당나라에서 가두고 신라를 치려하자 스님은 670년에 본국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보고하니 왕실에서 명랑법사(明朗法師)를 청하여 기원을 드리고 무사 하였다한다.

문무왕 16년에 태백산 부석사를 창건하고 현수가 화엄수현기(華嚴搜玄記)를 짓고 부분을 보내어 편지 한 것이 지금 유전한다. 화엄 10찰을 짓고 화엄경을 널리 펴으며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와 법계품초기 등 많은 화엄의 세계를 발간하였다. 또한 무량원겁(無量遠劫) 즉일념(卽一念)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 無量劫)의 진리를 명쾌히 밝히기도 하였다.

스님은 항상 천공을 받아먹었는데 원효가 찾아 가던 날은 천녀(天女)가 공양을 가져오지 않다가 원효가 떠난 뒤에 가져 왔거늘 왜 이제 오느냐고 물으니 원효 대사의 근처에는 화엄신장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 들어 올 수가 없었다 하는 설화가 있다.

한 때 원효와 같이 팔공산에 머물면서 팔공암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신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되어 있다.

#### 라. 관혜(觀惠)

스님은 신라말기의 고승으로 당시 가야산 해인사에는 화장종정(華藏宗正)이 있었는데 한분은 관혜(觀惠)스님이요 한분은 희랑(希郎)스님이었다고 한다. 관혜스님의 법문은 남악의 부석사라고 하며 교학적 방법보다 선적 개념에서 내관 적자성에 목적을 두고 대우주자연을 접촉하는 사색적 수행을 하였다. 스님은 지리산에 근거를 두고 전국 명승대찰을 두루 다니면서 수도하고 성주사(聖柱寺)에서 무량국사를 만나고 사술암에서 범일(梵日) 선사를 만나 현기(玄機)를 개발하고 서기 893년에 당나라에 건너가 무주 소산에서 광안을 찾아보고 중원 각지를 유랑하면서 선지식을 친견하고 고려 태조 4년

전라도 임피땅에 와서 후백제 견훤의 보호를 받으며 다시 출가 본산인 팔공산에 들어와 석탑과 불상을 조상하였다하니 팔공산의 석탑이 그 때 만들어진 것 같다.

고려 태조가 청고한 인품에 감복하여 상견하였고 고려 정종 2년(947)에 팔공산에서 입적하였는데 왕은 선사에게 동진대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신라 한국 문채 참조)

#### 마. 혜감국사(慧鑑國師)

국사의 속성은 박씨이고 탑명(塔名)은 만향(滿香)이다. 웅진(熊津) 사람이며 유가(儒家)의 출신으로 출가하여 구산선에서 괴과(魁科)를 합격하고 금강산, 지리산에서 정진하였으며 국사께서는 배가 고파도 먹지 아니하고 추위도 솜옷을 입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도 아니한 기인이었다 한다.

이 말이 고려조정에 전해지자 고려충렬왕은 국사를 초청하여 삼장사에 머물게하고 불법을 설하게 하니 랑월사, 운흥사 등 그 지역의 많은 선원의 조실스님으로 추앙 받았으며 그 후 충선왕의 안거비사로 초청을 받아 경사에 이르렀다. 때마침 전국에서 선교(禪敎)의 화가(話家)들이 모여서 강(講)을 하는데 국사는 지금까지의 평범을 파하고 봉창(棒唱)에 특이함이 일어났다. 국사의 설법이 현하 같으니 그 설법에 법연(法緣)을 맺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왕은 국사의 탁월한 설법에 감복하여 조석봉식(朝夕奉食)하고 출입시에는 삼정승의 가마와 동일하게하고 "별전종주 중속조 등묘명존자(別傳宗主 重續祖 燈妙明尊者)라는 호와 가사(袈裟) 등 은전을 더불어 많은 보시를 받았으나 서울의 영화를 버리고 「만법(萬法)이 오직 마음에서 생기는 것인데 불가(佛家)의 진리 앞에 물질이 무슨 영화가 되겠는가」라는 말을 남기고 산사로 돌아와서 다음의 계송을 읊으셨다.

곽청오온 진조공(郭淸五蘊 眞照空)

생사출몰 원전공(生死出沒 圓轉空)

오금하각 수변현(吾今下脚 誰辯玄)

고이제자 막만공(告爾弟子 莫漫空)

살았다는 것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인데/놓고 죽고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이 돌고 돌아 공인 것을/내 이제 수족이 불편함을 어떤 현인이 말

해주라/제자들이 너희에게 알리노니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스님은 우주만유(宇宙萬有)의 진실여상(眞實如相)을 현기(玄機)로 묘법(妙法)을 말하였다고 할 것이다. 인간이 별 다른 것이 아니라 대우주자연(大宇宙自然)의 일부임을 여실히 밝혀 주신 것이다.

#### 바. 벽계정심 (碧溪正心)

벽계정심은 조선 초기의 스님이며 충남 금산이 고향이고 속성은 최씨이다. 구곡각운의 법을 이어 받았으며 명나라에 건너가서 총통화상(總統和尚)의 법인을 전수하여 왔다. 태종의 불법사태 때 황간 황악산에서 피신 수행하다가 이곳 팔공산 팔성사에 오시어 오래도록 거주하였기에 이 지방 사람들은 팔성사를 벽계절이라고도 한다. 벽계(碧溪)라는 호도 벽계현(碧溪縣)인 장수땅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지금도 사하촌에 전해오는 설화에 의하면 벽계대사께서 가끔씩 지방의 유림들과 친교를 갖고 절에 돌아올 때에는 분명히 껌껌한 밤에 빈손으로 출발하였는데 중턱에 올라갈 때에는 흰한 불빛을 받으며 아주 빠르게 올라 간다하여 호랑이 타고 다니는 스님이라고 이야기 하며 또한 흉년이 들어 굶주린 불자들이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 스님께선 잠깐 어디를 다녀오시는데 반듯이 식량을 구해 와서 굶주림을 면하게 해 주었다고 하여 후에 알고 보니 팔성사 근처 가까이 있는 약수가 스님의 도력(道力)으로 하얀 쌀로 변했다는 설화도 남아 있다. 후에 벽송지엄(碧松智嚴)에게 법맥(法脈)을 전했다.

#### 사.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

벽송지엄선사의 고향은 부안이며 28세에 허종(許琮)의 군대에 들어가 야인(野人 女眞)들과 싸워 공을 세우고 탄식하기를 「심지를 닦지 못하고 싸움터에만 쫓아다니는 것은 헛된 이름뿐이다.」하고 계룡산 와초암에 들어가서 조계를 은사로 하여 승려가 되어 연희에게楞엄경(楞嚴經)을 묻고 벽계정심에게서 전등(傳燈)의 비밀한 뜻을 연구하는 동안 이곳 팔성사에서 다년간 스승이신 벽계를 모시다가 지리산에 들어가 계행을 청정히 하여 지견을 더욱 밝혀 총림의 종사가 되었으며 선원집과 별행록으로 초학들을 지도하여 여실히 지견을 하고 다음 선요와 어록으로 지해의 병을 제하고 활로를 열어 주었다. 법화경(法華經)의 “제법(諸法)의 적멸상(寂滅相)은 말로는 선설할 수가 없다.” 하는 대목을 설하다가 고요히 입적하였다. 법맥을 부용영관(芙蓉靈觀)



에게 전하였으며 선사께서 마음의 소를 찾던 시 한수를 적어 보기로 한다.

해가진 저문 날에 고삐 없는 소를 잃고  
 녹초를 베어 들고 소간 곳을 찾아가니  
 그곳은 수구 산자한 녹음방촌

#### 아. 부용영관(芙蓉靈觀)

호를 부용, 은암(隱庵) 연선도인(蓮船道人), 연화도인(蓮花道人) 등 부용과 연꽃처럼 맑고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관(觀)한다 하여 붙여진 것이다. 8세 때 삼천포의 어부였던 부친을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가서 살아있는 고기는 모두 물속에 놓아주고 부친께 꾸중을 들으면서 「사람이나 물고기나 목숨을 아끼기는 마찬가지오니 용서하소서」라고 하였다. 선사의 집은 용추(龍秋) 근방이었는데 소(沼)에서 때때로 구름이 일고 풍류소리가 들려 사람들은 신용(神龍)의 영현소(營絃炤)라 하여 근처에 가지 못하는데 어린선사는 무단출입하면서 지팡이로 소를 두들기면 소리가 없어지곤 하여 사람들은 선사를 용보다 무서운 사람이라 하였다. 평상시 놀 때도 모래사장에서 부처님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고 무엇을 들으면 그 원인을 알 때까지 캐물었다. 13세에 덕유산으로 혼자 가서 고행(苦行) 선사에게 의지하여 3년간 공부하다가 지리산에 가서 승려가 되어 신총(信聰), 위봉(威鳳) 두 스승께서 교학과 선리를 얻어 구천동에서 9년을 지내고 후에 조우(祖愚), 학매(學梅) 등 제방(諸方)의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벽송지엄을 만나 20년간의 의심이 풀려 지극한 마음으로 3년을 모셨다. 후에 40년 동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수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뜻이 맞는 도반들과 남해의 푸른 달빛을 가르며 풍류를 즐기기도 하여 연선도인, 연화도인 등의 그 시절의 연꽃처럼 밝고 향기로웠기에 붙여진 호 들이다. 법맥을 청허휴정(淸虛休靜: 일명 西山大師) 부휴선수(浮休善修) 등에게 전하고 선조 4년, 세수 87세, 법랍 72세로 입적하였다.

#### 자.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3)

호가 부휴이고 법명이 선수이신 스님은 속성은 김씨로 전북 오수에서 태어나서 17세에 신명(信明)을 은사(恩師)로 출가하여 수행 중 임진왜란에는

덕유산 바위굴에서 정진하면서 원각경(圓覺經)을 읽어 큰 구령이를 제도하고 평정 후에는 해인사에서 거주하였는데 명나라 장수 이종성이 자주 찾아왔다고 하며 글을 아주 잘 쓰는 명필가였을 뿐만 아니라 도력(道力)과 덕망(德望)이 높아 세인들이 우러러 모시고 법을 배웠다. 만년에는 고향이 가까운 이웃 팔공산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광해군 6년 하동 쌍계사 칠불암에 다녀와서 세수 72세로 입적하였다. 시호를 홍각등계(弘覺登階)라 하였으며 제자 각성(覺性), 희옥(熙玉) 등이 선사의 시집들을 모아서 광해군 11년(1619)에 부휴당집(浮休堂集) 5권을 발간하였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거의 폐허에 직면했던 팔성사가 최근에 많은 인연들의 도움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아 세인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청정 수도도량이 되어 있다.

#### 차. 신광사(新光寺)



- 사찰명 : 신광사
- 위 치 :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47번지
- 종 파 : 대한조계종
- 연 혁 : 865년(신라경문왕 5년)
- 재 산 : 답 5,276평, 전 5,420평, 임야 301,877평
- 대 지 : 160평
- 건 물 : 5동 50평, 대웅전, 명부전, 요사채, 산신각, 객사
- 소장품 : 불상 16구, 탕화 3점, 종 1개 25kg

· 교 자 : 승려 5명

· 신도수 : 200명

신광사는 865년(신라경문왕 5년)에 무량국사가 창건하였다. 창건년대는 865년 현재까지의 역사는 1123년이다. 오래된 고찰이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통일신라 후에 고려말엽까지다. 통일신라 후에 신라의 정치는 정직 성실 근면에서 부정부패 나태로 변질해가는 데 선각자들은 부패되어가는 중앙정치에서 이탈되어갔다. 그 사실상 나타난 것이 지방 토호들과 연결되어 새로운 불교의 기풍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구산선문이다. 구산선문중 가장 번창하였던 선문에 현재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에 있던 성주 구산선문인데 동선문의 창건주가 신라 무열왕의 8대손 이었던 무량국사였다. 무량국사는 성주사에서 선문을 일으켜 국사를 찾아 배우러 오는 자가 구름같이 모여 들었으며 많은 신도를 지도하고 한편으로 명승지를 찾아 계속해서 불사를 일으켰다. 때에 천천면 비룡리<sup>1)</sup>에 사지를 정하고 대웅전을 창건한 때가 서기 865년이었다. 국사는 신광사를 창건해 놓고 때때로 왕래하며 신도들을 지도하였다.

신광사에서 성주사까지의 거리는 4백리길인데 도보로 왕래하였다는 사실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선각자들은 불교의 신자를 많이 확보하는데 뜻이 아니라 국민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사업으로 하였던 것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디에서 보아도 신라불교는 종교차원에서 보다 애국차원에서 더 큰 비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여하간 성주사에서 신광사까지 왕래는 고행이라 할 것이다. 수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였을 것이 분명한데 무량의 선구적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동 고찰에도 불행은 찾아왔다. 1598년에 일본군에 의해 전소되었다. 창건 된지 7백 여 년 후였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때라 전하나 1592년 임진년에 일병들이 호남전역을 감히 엿보지 못하였고 6년후인 1598년 정유재란 때 호남이 저들에게 짓밟혔을 때 신광사도 전화를 입었던 것이다.

신광사가 창건된지 733년 되는 해 불행을 당하였다. 신광사 창건 후 성주산문의 화려하였던 불사를 생각해보면 필연 빼여 낼 문화재와 고승의 자취가 있을 듯 하나 화재에 불행으로 사찰의 운명과 같이 소실되어져 전혀 근거를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1) 원래는 비룡리였는데 일재가 와룡이라 하였다가 근래에 다시 비룡으로 정정하였음.



신광사는 전화를 당한지 51년 후인 서기 1649년(조선조인조 27년)에 천해선사에 의하여 중건되었다. 소실에서 중건까지 51년간의 공백기는 이 사찰의 유산 유물등을 더욱 손실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신광사는 순조 때 무송스님이 주지로 있을 때 당시 장수현감 조능하의 시주로 중수하였으나 조선조 초기부터 척불사상으로 우리나라 불교가 쇠퇴하였으며 신광사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존불여폐 생불여사(存不如廢 生不如死)라 그 명맥만 유지되었다. 대웅전을 비롯하여 무너지고 흩어져 사찰로서의 면모를 완전 잃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85년 정부보조를 얻어 붕괴 위급은 면하였다. 대웅전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 건물인데 지붕을 덮는 기와는 보기 드문 너새라는 석재로 희귀하여서 보기 힘든 재료이며 대단히 힘든 작업을 하였다. 돌을 재어서 만든 석재기와는 이 또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 동사찰 현재의 위치는 너무 단조로운데 앞으로 와남제(臥南堤)가 만들어지면 마치 동양화를 보듯 아름다울 것이다.

와남제가 완공되면 저수지에 물이 가득히 고여 새여 나가던 기운이 머물게 되어 명인은 머물고 재물은 고여서 풍부한 도장이 될 것이다. 명승 대찰 어디를 보아도 기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볼 수가 있다. 근대의 도장의 개념은 도시로부터 가까워야 하고 전화가 소통되어야 하고 자동차가 왕래해야 비로소 신도들이 찾아들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인 것이다.

#### 카. 원흥사(元興寺)



- 사찰명 : 원흥사
- 위 치 :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 447-1번지

- 종 파 : 태고종
- 연 혁 : 1887년
- 재 산 : 답 5,200평, 전 500평
- 대 지 : 500평
- 건 물 : 5동, 대웅전, 종각, 산신칠성각, 요사채, 잡건물
- 소장품 : 불상 22구, 탕화 5점, 종 1개 1.5kg, 석불(도지정문화재자료 41호)

이 사찰은 팔공산이 남향하여 마하치에서 서향하여 마하리 원흥부마일에 서 서북 편으로 살짝 돌아앉은 아담하고 양지바른 곳이다. 거대한 석불로 봐서 고려 때 상당규모의 도장이었다고 생각되나 사실 폐사되고 석불만 남아 있어 어느 때 누구의 작품인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석불의 규모는 대단히 크다. 높이가 4m, 둘레가 3m 정도 거대한 화강암을 조각하여 입상으로 되어있다.

예술 감각이 뛰어난 석불이다. 삼국시대 석불중 어느 석불에도 뒤지지 않는 정교한 석불이다. 고려시대의 석불이란 설도 있으나 고팔성사나 운점사 당시의 팔암자 중 하나였다는 설도 있으나 어느 때 조각물이든 간에 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한 석불이다. 동석불은 수백년동안 석불만 썼던 것인데 원흥마일에 화웅처사와 처사의 부인 허씨가 살았다.

어느날 밤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현몽하는데 집을 지어 자기 몸을 가려 달라 하였기에 처사 부부는 허술하나마 집을 지어 부처의 몸을 가리었다.

그때부터 부부는 불가에 귀의 하였고 부인 허씨는 운선이란 법호를 얻어 원흥사의 중수를 시작하였다.

운선이 입적하고 그 딸 청신(靑信)이 계승하고 3대째 춘당 김귀수에 계승되면서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서 보면 산수가 수려하거나 웅장한 것도 아니고, 인가부근의 아담한 사지일 뿐이다. 사찰이 있었다는 건 역시 국민 교육을 위한 교육장의 개념이 한결 짙다고 하겠다.

현재에도 이 부근의 신도들이 많아 정월 보름맞이나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나 7월 백중맞이에는 수백명 신도들이 와서 부처의 공덕을 기린다. 장수에서 산서로 가는 우편으로 원흥마일이 있고 이 마을 서북편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 타. 영월암(映月庵)



- 사찰명 : 영월암
- 위 치 :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 38-2
- 종 파 : 대한조계종
- 연 혁 : 1963년 문공부등록
- 재 산 : 답 316평, 전 516평, 임야 3정보
- 대 지 : 104 평
- 건 물 : 대웅전 13평, 삼성각 3평, 요사채 15평
- 소장품 : 불상 6구, 탕화 7점, 종 1개 15kg

이 절은 현재 장수군 산서면 봉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장수군 산서면과 남원시 보절면, 덕과면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절이 있는 산은 마치 평지였다 깃대를 세운 듯 서 있다. 그런 까닭인지 이산에 상당한 규모의 고성이 있다.

이 고성을 보면 현재도 성석이 온전히 보존되어 성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축성 방법으로 미루어 보아서 백제의 산성이라는 것이 정평이다. 남원에 교룡산성과 동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이며 추리컨데 신라와 백제가 소백산과 지리산을 국경으로 다룰 때 전방 군사를 돕는 후방의 무기와 군양미의 집합적 보관소로 사용하기 위해 백제가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 국방용으로 축성한 산성의 위치는 험산이 아니면 아예 택하지 않았던 것은 역사적 상식이다.

높이 솟아있는 이 산상에 기이하게도 상당한 양의 맑은 물이 우천 시는 물론 언제나 솟아나며 또 이 산상에 비옥한 토지가 있어 소채 등 자급할 수 있으니 천지자연의 기이한 섭리는 참으로 위대함을 느낀다.



이 산상에는 서북을 막고 동남을 훤히 열린 곳이 있는데 이곳에 영월암 사지가 있다. 서기 660년대에 신라 고승 원효대사는 세상이 널리 알려진 요석궁 생활은 자신 이 먼저 파계를 알고 고행을 시작하였다.

이때에 전라도 부안군 변산에다 작은 방을 만들어 기거하였다. 후일 이곳에다 절을 지어 원효옥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시기인 듯 하다고 추리된다. 원효대사는 이곳 영월암 부근을 지나다 산이 묘함을 보고 이곳에 올라와 토굴을 파 토굴에서 한겨울을 났는데 달이 잘 비치니 이곳을 떠나기가 싫다고 하면서 훌훌이 떠났다고 한다. 후일에 이곳에다 적은 암자를 지었다.

고승들이 수시로 많이 머물고 갔다고 고증의 기록들이 1950년 6·25사변으로 모두 소실되었고 따라서 산사까지 소각되었다. 스님들이 비바람을 피할 요사채 하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적극적인 불심에 의하여 수많은 신도들의 합심 협력으로 불사를 크게 일으켜 대웅전을 훌륭하게 축조하였다. 종각도 완성이 되어 있다.

이곳은 산사로서 빼어난 위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제자가 아닌 속세 서생 이라 할지라도 수신 수심하는데 더 없이 좋은 곳이라 할 것이다. 원효 스님 말에 달이 밝으니 떠나기 싫다는 말은 정말 실감이 난다.

이 근방에서 제일 높은 산인까닭에 달이 제일 먼저 보이며 또한 달이 제일 늦게 지니 그 또한 수도자에게 표현 못할 무엇인가를 줄 것이며, 이곳에서 동서남북 어디에도 인가가 있기 때문에 산사가 속세를 내려다보고 훈화를 한듯 하며 안개가 자욱한 아침이면 위에는 밝고 푸른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솟털 같은 구름바다에 정좌한 듯 한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되니 가히 명지라 할 것이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이 사찰은 크게 번영하리라 생각된다.

이 사찰의 교통은 비교적 불편하다 할 것이다. 산서 남원간, 남원 산서간, 완행버스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시 왕래하니 이 차편을 이용하여 봉서리 고산마을 입구에서 하차해 도보로 20분쯤 산로를 따라 오르면 성산이 있고 이 성산내에 영월암이 있다.

또한 산서면 소재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면 이 절까지 갈 수 있으며 이 산사에도 전기가 가설되어 있고 전화도 가설되어 이용에 편리하다.

#### 파. 도광사(道光寺)



- 사찰명 : 도광사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 산11번지
- 사 격 : 태고종 597 구 800 도광사
- 연 혁 : 이 절에는 대웅전 불상의 유래보다 삼선각의 전설이 유명하다.

삼선이란 칠성 산신 누왕신 즉 용왕신을 모신 삼선각의 전설이 깊다.

칠성산신 용왕신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입수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토속 신앙이라 할진대 이 삼선각은 연혁을 알 수 없으나 오랜 신앙지임은 틀림없다. 이 삼선각을 기초로 하고 도광사를 창건한 점으로 보아 연혁은 대단히 깊다.

이상의 연혁에서 밝힌바와 같이 하늘에 기도하고 산신에 기도하고 용왕에 기도 하니 어찌 도를 통하지 않으랴. 그러므로 도를 통하여 빛난다 하여 도광사라 명명하였다. 규모는 아주 작은 사찰이다.

사지면적은 250평정도이며 대웅전이 9평, 요사채가 20평, 객실이 12평이다. 그 소원성취로 유명한 삼선각이 4평이다. 변천 과정을 보면 당초에는 삼선각 이였으나 1930년경부터 불상을 모시고 불교 도장으로서 발전하였다. 불상은 3구가 있으며 불상은 석가모니불이며 좌우에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다. 탕화는 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웅전이 화려하다. 종은 1개가 있으며 지름이 90cm이다.

이 절 입구에는 절 창시자의 비석이 초라하게 서있다. 재산은 임야 1,500평이 있을 뿐이다. 신도는 200명이 있다.

이 절은 장수읍에서 남향 5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후좌우에는 산

림이 울창하고, 앞에는 개정제 저수지 물이 맑으며, 산상에 신라와 백제의 국경적 전초지인 방어 산성이 자리하고 있어 명승지이다.

#### 하. 도성사(道聖寺)

- 사 찰 명 : 도성사
- 위 치 :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52 번지
- 종 파 : 대한불교 화엄종
- 창건연대 : 1950년
- 연 유 : 1950년 공산당 난리로 인해 비참하게 사라져간 중생의 왕생극락을 위해 이곳에다 불사를 성사하고 불상에게 조석공양하였다. 한달인 보살님은 진정 보살이라 하겠다.
- 규 모 : 사지 700평
- 건 물 : 6동 50평
- 탕 화 : 6점
- 종 : 1개
- 재 산 : 전 400평
- 신 도 : 남 30명, 여 200명 예습신도, 남 10명, 여 20명, 현재는 장진식이 봉사하고 있다.



#### 거. 강선암(降仙菴)

- 사 찰 명 : 강선암
- 위 치 : 장수군 변암면 유정리 917 번지
- 종 파 : 대한불교 태고종 강선암
- 연 유 : 이곳에 원래 불사가 있었던 것을 오순섭씨가 발견하고 강선암을 창건하였다.
- 명칭유래 : 이 부근의 지명이 구선동 이었는데 구선이 하강한 곳이라 한다.
- 규 모 : 건물 4동, 불상 4구, 탕화 4점, 종 1개, 사지 800평
- 재 정 : 답 400평, 전 400평

현재에도 오순섭씨가 봉불하고 있으며 산천이 수려하고 한적 하여 선유지(仙遊地)라 할만 하며 신도가 많이 내왕한다.





#### 너. 장안사(長安寺)



- 사 명 : 장안사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92-2번지
- 종 파 : 태고종 장안사
- 연 혁 : 1969년

장수읍 노하리에 거주한 박춘근씨는 자녀의 명복을 빌고, 후손을 위해 현재의 위치에다 동사찰을 건립하였다. 사지는 200평으로 대웅전 20평, 숙소 57평, 부속사 67평이며 종각 1채, 불상 3구, 탕화 5점, 종 1개이다.

#### 더. 칠성암

- 사 명 : 칠성암
- 위 치 :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126
- 종 파 : 화엄종
- 연 혁 : 1965년
- 재 산 : 대지 40평, 건물 1동 15평
- 소장품 : 불상 3구, 탕화 3점, 종 1개 75kg
- 신 도 : 40명

이 절은 1982년 5월 10일에 등록하였으며 장수에서 번암으로 향하는 도중 상교동 하교동 금천 사이 산속에 위치하고 있다.

영세한 도장이며 한적하기 비할 데 없는 암자이다. 암자의 위치가 고산지대이며 적은 폭포수가 시원하여 물을 맞고 산신과 부처에게 기도하면 잔병이 없다하여 마을 사람들이 왕래한다.

## 러. 세심사



- 사 명 : 세심사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20-1번지
- 종 파 : 태고종
- 연 혁 : 1970년
- 재 산 : 답 200평, 전 1,000평
- 사찰대지 : 1,000평
- 건 물 : 3동 40평, 법당 10평, 산신각 4평, 요사채 26평
- 소 장 품 : 불상 5구, 탕화 3점, 종 1개(소형)

세심사는 장계면 삼봉리 후록에 있으며 1953년에 창건되었으며 1973년 임봉미스님이 대웅전을 창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계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에 신도가 상당히 많으며 위치도 현대적 위치를 점유하였다고 보여 지나 사실상 운영자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듯 하다고 하겠다.

세심사 입구에 있는 탑동 석탑은 대단한 불교 예술품이며 이 석탑 위쪽에 가서 세심사가 자리한 것은 우연이 아닌 어떠한 인연이라 생각된다. 이 문화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자기 수양이라고 보아서 이 곳은 대단한 수양처가 될 것이다.

## 머. 금덕사(錦德寺)

- 사 명 : 금덕사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 1번지
- 종 파 : 태고종

- 연 혁 : 1947 년
- 재 산 : 답 200 평, 전 1,000 평, 임야 500 평
- 대 지 : 346 평
- 건 물 : 3 동, 대웅전 7.5 평, 칠성각 4 평, 요사채 15 평
- 소장품 : 불상 3 구, 탕화 4 점, 종 1 개 2kg

이 사찰은 장계면 금덕리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가 높아 만호중생을 굽어보고 제도의 염불하듯 하면 저녁 공양드리는 소리는 천상에 내려오는 교훈인양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업무를 다한 듯 하다.

1943년에 서용수(徐用守)에 의하여 창건되었고, 1947년, 1956년 보수하였으며 1971년에 한국불교 태고종에 등록하였다. 북을 등지고, 남향 하여서 몹시 따뜻하며 계남 장계가 한눈에 들어오는 명산지이다.

금년에는 국도 19번에서 사찰까지 도로를 신설하여 신도왕래에도 불편이 없다. 금덕사는 50년 동안 운영해 오다 신도수의 감소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드디어 1993년 초에 문을 닫고 이름만이 남게 되었다.

#### 버. 미륵암



- 사 명 : 미륵암
- 위 치 :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산4-1번지
- 종 파 : 대한태고종
- 재 산 : 답 2,000 평, 전 600 평
- 대 지 : 200 평
- 건 물 : 5동, 대웅전 12 평, 수선당 13 평, 요사채 14 평
- 소장품 : 불상 3 구, 탕화 3 점, 종 1 개 20kg
- 미륵석불 : 1 조

- 대 고 : 1 점

이 절은 산서면 오산리 상단부에 있다. 산세가 웅장하고, 수세가 원만하여 평소에 명산으로 지명된 곳이다. 팔공산 한맥이 서행하다 영대산을 놓고, 다시 서향하여 칠봉산을 놓고 칠봉산이 남하하여 고요이 자리 잡은 곳이다.

뒤에는 용이 기어가듯 범이 끌어안듯 움지고 앉음이 모두 형에 맞춰졌고 앞에는 해묵은 밤 숲이 울창하며 개천을 흐르는 맑은 물은 사철 노래하는 곳이다. 이 산에 이름도 때도 모르는 석불이 있어 풍우에 젖고 상설에 얼어 수백 년 무주 불신이 있었는데 하오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선비 한분이 호



를 담헌(潭軒)이라 하였다. 선생께서 이 불신을 보시고 언젠가 누구의 소품이든 교훈이 될만한 불신을 그냥 둘 수 없다 하여 가산을 내어 터를 닦고, 집을 지어 미륵암이라 명명하고 불상에게 공양도 들인다. 담헌 선생의 말에 의하면 나라에 길사가 있으려면 이 불상이 환하게 변색을 하고 흥사가 있으려면 이불상이 석태가 끼여 몹시 추해진다 하는 전설이 있다.

이 불상은 정교하게 조각된 예술품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조각 연대는 통일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의 유물로 보이는 아주 소중한 예술품이다.

#### 서. 칠령사(七靈寺)

- 사 명 : 칠령사
- 위 치 :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산10 번지
- 종 파 : 태고종
- 연 혁 : 1970년
- 대 지 : 1,000평
- 건 물 : 5동, 법당 3.8평, 법당 5.4평, 법당 6.2평, 요사채 8.2평
- 소장품 : 불상 7구, 탕화 4점, 종 1개 13kg



이 절은 산서면 오산리 후산에 있다. 1970년에 등록하였으며 교직자가 상당 수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 하겠다. 영산하에 있으며 하루하루 수양하며 자기완성을 위해 정진하고 주지를 따라 신도들도 열성이 다르다고 하겠다. 특히 인가와 인접한 까닭에 수양과 공부하기에 알맞은 도장이라 하겠다.

#### 어. 극락사(極樂寺)

- 사 명 : 극락사
- 위 치 :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산 135-21
- 종 파 : 대한불교선원
- 연 혁 : 1940년경
- 건 물 : 7동, 법당 10.3평, 요사채 7.4평, 선원 10.5평, 산신각 1.8평, 창고 9.8평, 기타 1.7평
- 소장품 : 불상 1구, 탕화, 종 1개



이곳에는 근년에 절이 없었는데 고래로 지명이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왔다. 지명은 삭삼불이었다. 그 뜻은 세분 부처님께서

터를 닦아 정리하고, 불사를 설치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 전설은 7세기경에 토옥동내에 창건되었던 심방사에 예속되었던 암자였다. 사명은 삼불암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로 인해서 후일에 구전된 언어로 삭삼불이라고 전하게 되었다. 불사의 인연이란 묘하여 언젠가 반드시 연이 있어서 결실이 되는 점이다. 이 삭삼불에 불사가 신축되었고, 불제자가 수호한 이상 고심방사의 연고지라면 현재의 토옥동 하부에 있는 석탑을 이 극락사에 이전하여서 보호함이 좋을듯 하다. 심방사에 예속되어 삼불암이 재생 되어 심방사를 이은 것이 인연의 관계라 생각된다.

### 저. 용운사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670 번지
- 사 명 : 용운사
- 사 옥 : 29 평
- 대 지 : 200 평
- 종 파 : 화엄종
- 불 상 : 3
- 탕 화 : 5 점
- 종 : 1 개 90kg

· 재 산 : 답 3,600 평, 전 1,200 평, 임야 5,250 평

상기 사찰의 연유를 들으면 언젠가 서당 터였는데 1930 년경에 인근 마을의 백정운씨가 후사가 없음을 근심한 나머지 남편과 이혼 후에 불교에 귀의하여 이곳에 사찰을 지었으며 이런 이유로 금일의 용운사가 되었다고 한다. 불법의 인연이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심오(深奧)한 이치가있는 듯함을 이 용운사에서도 느낀다.

597년에서 632년 사이에 군왕이었던 신라 진평왕이 중수하였다는 기록을 남긴 운침사 후에 팔성사에 속하였던 팔암자 중의 하나였다는 전설 속에 1300여년 후에 1930년경에 다시 세워진 절이라 하겠다.

한적한 곳에 있는 이절은 도로 조건 전화 등 현대인에 알맞은 시설이 부족하여 비교적 교도의 왕래가 적은절이다.

한적하며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주위에는 단평비폭(丹坪飛瀑)이 있어서 휴양소로도 좋은 절이다.

### 처. 탑동석탑(塔洞石塔)



구장수지 건권에 기재하기를 <塔洞石塔 在 溪內塔洞 高二丈 六層>이라고만 기재되었는데, 이 탑은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탑동마을 입구에 있다. 구장수지가 기록한 내용과 동일하며 탑의 위치도 동일하다.

이 탑의 규모를 보면 대단히 거대한 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탑이 서 있는 현재 위치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주위의 상당한 면적이 자연 그대로 공휴지가 되어 있어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이 탑지에서 불과 100m 내외에 탑동마을이 있고 이 마을은 이 근방에서 이렇다하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지로 이용할 법한 땅인데 수백 년을 유흥지로 두었으며 현재까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온 점은 어떤 원인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탑에서부터 탑동 전체가 고사지였다고도 한다. 이곳 장계가 군현으로 전하는 것은 서기 555년(신라진성왕 16년 乙亥)에 벽계현을 이 땅에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전에도 큰 부족이 살았거나 군현지(郡縣之地)였었다는 것은 이로서 입증된다. 삼봉의 노평상단에 있는 지석묘는 북방식 지석묘라고 한다.

이 지석묘의 주인공들도 살았으며 또한 장수황씨가 부족국가를 이 근방에 형성하였다는 설도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보면 오랜 선사시대부터 많은 인류가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할 것이다.

여하간 우리나라의 불교활동을 보면 신앙으로서의 불교보다 국민적 교육으로서 불교가 더 큰 이바지를 하였던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개념이나 통일신라 후에 구산선문의 개요나 고려건국 이념이나 고려중흥의 개요를 보면 절대적인 국민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탑지의 사찰은 백제시대이전 통일신라 후에 거대한 사찰이 이곳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근 장계, 장수, 계남, 계북, 천천 등지의 많은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도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큰 도장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 거대한 사찰 터에 함부로 경지를 전환하기 싫어하였기 때문에 오늘



까지도 공지로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보면 조사자가 천천 신평사 창건주의 무량국사를 연구하기 위해 국사의 수산지인 충남 보령군 미산면 성주리 성주사를 찾은 일이 있는데 1593년 계사년에 왜군에 의해 소실되었다는데 현재까지 중수한 사실도 없이 폐지로 있다.

수만평이 공지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누구도 기입하여 감히 그 터에 가서 살수가 없으며 인가가 근방에 있으나 밤이면 폐사지에 접근치 못한다고 듣고 대지에 소인이 살 수 없음을 생각하였다.

탐동 탐지의 경우도 유사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대개 사지가 정해지는 것을 보면 깊은데 정해져있다.

불교란 자기완성과 정신수양을 우선한 까닭에 고요 적적인 곳을 선택함도 사실이겠지만 고려 후 유교와 심한 대립으로 인해 산간으로 퇴보 한 적도 있었으며 또한 조선조에서 척불사상으로 인해 불교는 스스로 심산유곡을 선택한 점도 있어 연유가 있겠다.

#### 커. 수월사 사리탑(水月寺 舍利塔)

이 사지는 현재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정동마을 후 산하에 있었다. 이 사찰의 사적 근거는 어느 때인지 고증할 아무 근거가 없다. 그러나 실물로 5층의 석탑이 존재했던 점으로 보아 언젠가 상당한 규모의 도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근방에 있는 신평사가 통일 신라 후에 즉 서기 800 년대에 무량국사가 창건한 사적 고증으로 미루어 보면 수월사는 백제의 절로 백제가 번성해 이 부근에 우평현을 설치하였을 때 현 위치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되어 백제에서 지역주민 교육상 설치하였고, 신라 삼국통일로 백제가 멸망할 때 이 절도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적 추리 밖에 할 수 없으나 사찰 석탑으로 보아서는 고사지임이 의심치 않는다.

이상과 같은 추리로 보면 장수 팔공산 팔성사와도 일맥상통케 한점이 있다. 이런 일로 미루어보아 수월사는 백제인이 창건한 절이며 이웃의 신평사는 신라인이 창건한 절임이 거의 확실하다.

이상의 사리탑은 규모면이나 예술 면으로 보아 웅장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섬세하고 아담한 공법이며 순수한 점으로 미뤄 보아 절 자체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며 아담한 도장인 듯 하다.

이런 사지나 유적을 보면 조사자로서 어딘가 애석한 점을 느낀다. 특히 불가의 경우를 보면 결코 득도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혼자 알고 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다른 종교에서 보다 불교에 더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찰이 폐사가 되고 탑만이 있는 것을 주위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옮겼다.

이 탑은 천천 초등학교에 있었다. 이곳으로 옮겨진 것은 1950년경에 교육상 필요로 느낀 학교 당국과 동 학부형들이 옮겨서 학교 후정에 있었다. 이 학교 후정으로 옮겨진지 30여년이 지난 후 1988년 1월에 도난을 당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 터. 구연암(九蓮菴)

재 현동 영추산(在 縣東 靈?山)이라 하였는데 역시 사지도 분명치 못하다. 장안산을 일명 영추산이라 하였는데 장안산 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 퍼. 성불암(成佛菴)

이 사찰은 장수 구읍지(舊邑誌)에 재 군면 성적산(在 郡面 聖跡山)이라 기록은 있으나 소재도 불분명하다.

#### 허. 정토암(淨土菴)

이 사찰은 장수 구읍지에 나타나기를 재 현북 덕유산 금폐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고사지마저도 알 길이 없다.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후산에 정토골이란 지명이 있기는 하나 이곳에 사찰이 있었다는 설은 없다. 좀 더 연구하고 찾아 볼 흥미 있는 일이다.

#### 고. 영지암(靈芝菴)

이 사찰은 현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교목동에 있었으나 폐사가 되었고 사지도 찾아 볼 수 없다.

#### 노. 용광암(龍光菴)

이 절은 현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서록이라고 장수지 전권에 기록은 있으나 사지가 불분명하다.

### 도 성관사(星觀寺)



- 사 명 : 성관사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 32-2번지
- 종 파 : 조계종
- 재 산 : 종교용 대지 1,280 평
- 건 물 : 대웅전 20 평, 산신각 5 평, 조실채 23 평,  
요사채 25 평, 대각선원 73 평, 후원채 30 평
- 소장품 : 불상 3불, 탕화 8점, 종1(28관)
- 신도수 : 남 1,000명, 여 1,100명 계 2,200명
- 설립년월일 : 1993년 11월 18일
- 포교자 : 무지(無地) 월성선사(月星禪師), 주지 삼진(三眞)스님,  
총무 성진(成眞)스님 기타 승려 16명

이 절은 원래 이 자리에 금덕사가 세워져 있었는데 관리인이 수차 바뀌면서 운영 부실로 폐사의 지경에 있었으며 이의 소유권을 양우근선생이 갖고 있었다. 양우근선생은 절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월성스님을 초청하여 답사케 하였더니 이 절터는 백학이 나르는 형국에다 남 덕유산 지맥인 깃대봉에서 수많은 학 때가 날아와 모이를 쪼아 먹는 형상이라 절을 일으켜 세우고 수도를 하면 큰 도인이 많이 배출하리라 한다.

양선생이 절터 1,280 평을 시주함으로써 월성스님이 수년에 걸쳐서 156억원을 투자하여 불사를 일으키어 현재와 같은 큰 절을 세우게 되었고, 수행 참선의 도장으로 속세에 때가 묻지 않고 밤하늘에 찬란하게 홀로 별빛같이 어둔 밤에 중생의 사바세계를 밝힌다는 뜻에서 성관사라 절 이름을 지었다.

절집이 완성됨으로써 승려와 신도들이 모여들었으며 포교의 이념을 처치



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의 진리에 입각하여 너와 내가 다 같은 불성을 갖고 있다는 동일성 관념에 입각하여 승려교육을 통하여 큰 스님이 되게 하고 그 스님을 통하여 부처님 법을 배워 나가고 가르쳐 교화시키는 상구보시(上求菩提)와 모든 중생이 탐진치의 욕구에서 금수와 같이 사는 미법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팔정도의 불법을 깨우쳐 따르도록 하는 이념에 입각하여 매 음력 1월 18일에 정기 법회를 열고 특별 법회로 4월 초8일 7월 백중과 칠석날 동짓달 동지에 법회를 열며 전수와 교화에 힘쓰고 있다.

#### 로. 선유사(仙遊寺)



- 사 명 : 선유사
- 위 치 :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117 번지
- 종 파 : 관음종
- 재 산 : 전 200 평, 산 3,000 평
- 대 지 : 300 평
- 건 물 : 대웅전 20평, 요사채 15 평, 산신각 2 평
- 소장품 : 불상 5불
- 신도수 : 남 50 명, 여 250 명
- 설립년월일 : 1987년 3월 1 일
- 등록년월일 : 1989년 11 월 4 일

이 절은 삼남의 명산인 덕유산의 지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선유봉을 이루었으며 북서쪽으로 병풍처럼 둘러친 남향 산자락에 좌청룡 우백호의 산줄기가 뚜렷하며 절 앞들을 지나 금덕 저수지의 명경지수 저 너머 장계 한들이 한눈에 펼쳐져 있는 전망이 자연의 경치가 아름다운 명당의 자리에 선유사가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다.

선유사의 설립년도는 알으나 보련(寶蓮) 스님의 보살로서 오랜 세월동안

상구보시, 하화중생의 중생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가르침, 어리석은 번뇌에서 벗어나 밝은 지혜를 터득하고 어리석고 망령된 집착에서 벗어나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참다운 불제자로서 일거일동이 우주 자연의 진리와 결합하여 묘경에 이르는 전미개오(轉迷開悟), 성불득탈(成佛得脫)의 종지의 해탈을 구하고자 혼미와 번민을 거듭 방황하다. 돈오 부처님의 계시가 있어 찾아들어 정주를 하고 절을 세우게 되었다. 선유봉아래 신선이 노니는 형국과 같다하여 선유사라 이름 하였다.